



제주 삼다수 신규 개발사업 막히나

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 예고 삼다수공장 관리구역 포함에 신규 취수 제한 우려 특별법 법령해석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의 신규 개발사업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내 JPDC의 삼다수공장이 위치해 있어 법령 해석에 따라 지하수 신규 허가가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추가 지정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중산간 구역 약 450km²와 고산·무릉

일부 구역 22km² 등 총 472km²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목적은 제주 지하수 보존·보호다. 지하수 개발이 과도하게 이뤄짐에 따라 취수를 제한하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하며 지하수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지역에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를 금지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삼다수공장(조천읍 교래리 산70 남조로길)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의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되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가 적용된다.

반대로 제주특별법 제380조의 제2항에는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항을 적용할 경우 신규 취수가 금지되지만 2항을 적용하면 허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법령해석에 따라 JPDC 신규 개발사업 추진의 희비가 갈린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증산은 가능하지만 신

규 개발은 제한된다”며 “JPDC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내달쯤 답변을 받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JPDC는 1995년 제주도가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삼다수 등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JPDC에 따르면 공사 매출은 지난 2016년 2515억원, 2017년 2584억원, 지난해 약 2754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삼다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단계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6일까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8월쯤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올내 내 고시할 방침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강창일 의원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자치분권 실현 등 공로 인정



강창일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제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강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립임을 강조하며,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지방정부

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태를 지적했고,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시켰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선도지역으로서 이에 걸맞는 핵심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합의(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견)를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수상 직후 “자치와 분권은 우리 생활 속에 뿌리 내려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된 제도 개선을 이뤄내 보람을 느낀다”며 “제주 지역을 모델로 전국에 분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국회 찾는 4·3유족회... “특별법 개정을”

오늘 국회서 결의대회 개최 여야 대표에 결의문 전달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올내 안 처리를 촉구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비롯해 제주에서 상경하는 유족 140여명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유족 50여명,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준호) 등 제주에서 20여개 단체, (사)제주4·3범국민위

원회, 재정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발의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민의를 정당인 국회가 당파정쟁에만 몰두하는 작태를 바라보는 4·3 희생자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이번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여야 대표들을 만나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소나무재선충병 3차 방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류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7월 9일부터 11일 까지 3일간 ‘3차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3차 항공방제는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지역의 소나무림 1000ha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앞서 도는 지난 5월과 6월 2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방제활동에 지원되는 헬기는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소속 까프프(KA-32T) 대형 기종이며, 1회 비행시 60ha에 대한 방제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3차 항공방제 기간 중앙봉 및 축산농가 등에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한우, 저렴하게 맛보세요” 27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열린 ‘한우 직거래 할인 행사 및 숯불구이 축제’에서 시민들이 할인 가격에 한우를 구입하고 있다.

귀덕1·와흘·세화1·신홍1리 제주도 행복마을 최우수상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와 조천읍 와흘리,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남원읍 신홍1리가 ‘제6회 제주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제주도립미술관 강당에서 콘테스트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화·복지 분야에서 귀덕1리 마을은 만원의 행복기금 후원 운동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마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업을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세화1리 마을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색있는 경관조성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주민 자체적인 경관 보존과 유지관리로 잘 사는 마을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이번 선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7월 중 현장 종합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 마을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본선 진출 마을은 전국 20개 마을이다.

이소진기자

“스포츠도 제주 관광자원... 기금 도입해야”

제주체육진흥포럼 토론회 전문가들 “종합단지 조성 등 실행 위한 재원 확보 필요”

지속가능한 제주체육 진흥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대표의원 이승아) 주관으로 2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제주체육진흥포럼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제주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단년도 일

반회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노후화된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제주 일대 체육 시설에 대한 활용 및 관리방안, 재건축 및 리모델링 방안은 물론 가칭 제

주 스포츠종합단지 조성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승아 대표의원은 “제주의 관광산업은 이제 스포츠산업과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체육 시설 개선을 통해 메가급 스포츠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있다”며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 완효적 질소비 효과
- 식효효과
-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 선충 밀도의 저하
- 잡초의 경감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소독 효과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의 비옥화
- 토양 미생물 활성화
- 유기물의 부숙 촉진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 품목**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용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마늘·양파·양배추 농가에게 알립니다

하하농법이 해결이다!!

<p>마늘</p> <p>○ 금년도 마늘 평당 10kg 생산능가가 있어 화제! → 대정읍 하모리</p> <p>김OO씨는 2,400평에 하하농법으로 재배한 마늘이 24,000kg 생산되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p> <p>○ 밀거름 : 이노페스 + 복비(21-17-17) ○ 추 비 : 히토락F + 복비 ○ 비 대 : 히토락F</p> <p>※ 이노페스를 사용시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 토양개량제(소석회 또는 생석회) 쓸 필요가 없습니다.</p>	<p>양파·양배추</p> <p>○ 묘종을 정식전에 하하농법인 브이(V)패스로 침지 또는 침전 후 정식 → 정식후 뿌리가 내리면 브이(V)패스로 엽면시비 해준다.</p> <p>○ 브이(V)패스 : 500ml 1병 12.5팔로 희석해준다 →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 뿌리혹병, 마늘 잎지 썩음병, 감자 시들음병 등등..)</p> <p>※ 대정읍 신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p>
--	---

올 농사도 하하농법으로 하하 웃는 농민과 함께하는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 · P 010-2633-5349